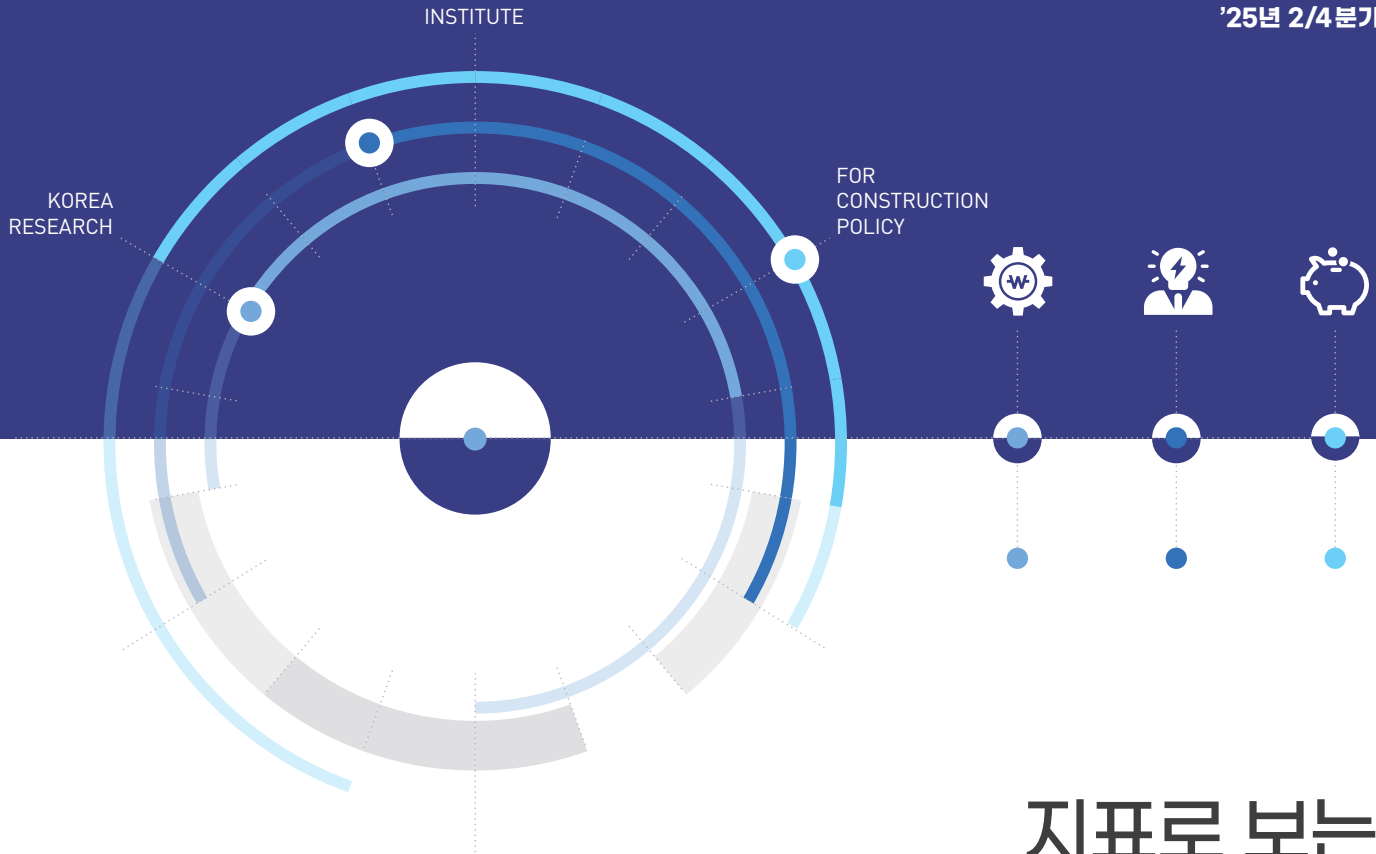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 시장동향 및 전망

건설시장

(2분기) 주요 건설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건설기성 감소세가 심화
(3분기) 새정부의 경기진작 정책으로 반등이 기대되나, 연간 부진은 지속

전문건설시장

(2분기) 계약액 감소 추세가 지속되며, 상대적으로 원도급공사가 부진
(3분기)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전문건설업 업황 개선 가능성은 낮은 상황

주택시장

(2분기) 서울 중심의 국지적 상승세 지속, 지역 간 양극화는 더욱 확대
(3분기) 금리인하는 기대요인이나, 지방 미분양 부담으로 회복세는 제한적

🔍 이슈 진단

1. 하반기 건설시장 전망

건설경기 침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수요 활로를 모색

2. 하계 건설업 산업재해 실태와 대응방안

하계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안전 지원과 교육 강화 필요

3. 주택보급률로 살펴본 '준공후 미분양주택' 위험 지역 점검

주택보급률이 100% 넘는 지역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주택 집중

4. 부동산 개발사업에 프로젝트 리츠 적용

개발사업에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 등 다양한 리츠방식 도입이 예상

시장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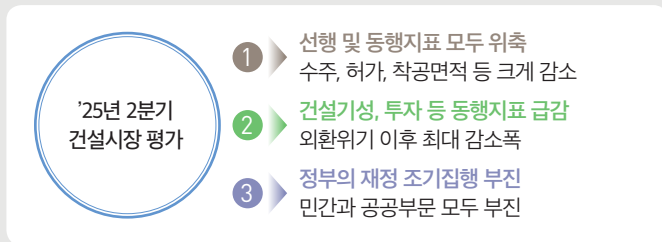
거시 경제 여건

- ▶ 한국은행은 수정 전망(2025.05.29.)을 통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재차 하향 조정
 -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내수와 수출 증가폭이 모두 축소되면서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향
 - 대내적으로는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과 급격한 건설투자 감소가 결정적인 영향으로 작용
 -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 요인
- ▶ 새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하반기 성장률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연간 기준 경제성장률이 2%를 넘어설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구분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
경제성장	- 글로벌 무역갈등 추가 완화 기대 - 정치 불확실성 완화로 인한 경제심리 회복 - 새정부의 경기 부양책	- 주요국 통상갈등 부각 등 불확실성 - 중동갈등 등 글로벌 긴장 국면 - 건설부문의 경기 둔화 지속
물가	- 기업들의 가격인상 움직임 -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가격 상승	- 수요측 물가압력 약화 -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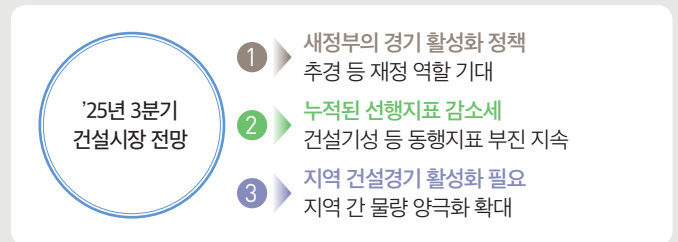
건설 시장

건설시장 2025년 2/4분기 동향



- ▶ 건설지표 전반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의 감소세가 심화

건설시장 2025년 3/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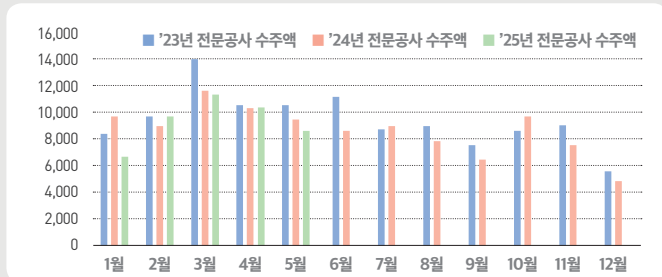
- ▶ 새정부의 추경과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소폭 반등이 기대되나, 연간 부진은 지속될 전망

전문건설 & 생산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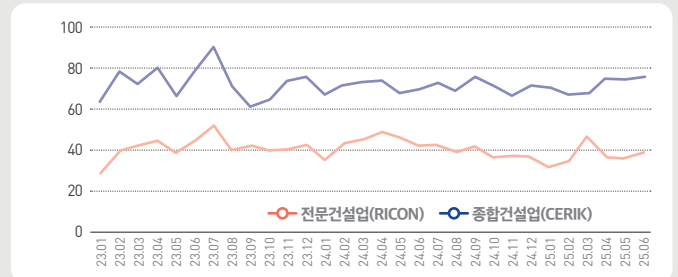
-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감소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원도급공사 부진이 심화
 - 4월과 5월 하도급공사 계약액은 보합 수준인 반면, 원도급공사 계약액은 각각 3.5%, 10.5% 감소
- ▶ 전문건설업 경기체감도(BSI)는 최저 수준으로 업계의 부정적 심리 상황을 반영

전문건설업 계약액 추정치

(단위: 십억 원)



종합 및 전문건설업 BSI 추이



주택시장

주택시장 2025년 2/4분기 동향

주택가격	전국	약세 지속
	수도권	완만한 반등세
	지방	하락세 유지
	서울	선택지역 중심 회복세
종 합		양극화 고착화

- ▶ 서울 중심의 국지적 상승세 지속, 지역 간 가격 격차는 더욱 확대

주택시장 2025년 3/4분기 전망

미분양주택	지방 중심의 미분양 누적 지속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주택가격전망	금리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회복에는 한계
종 합	수요 위축 지속

- ▶ 금리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방 미분양 부담으로 회복세는 제한적

건설시장

2025년 2/4분기 건설시장: 건설지표 전반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의 감소세가 심화

- 2025년 5월까지 발표된 건설지표를 살펴보면 선행지표는 물론 동행지표까지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부진이 지속
 - 금액기준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작년에는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올해 5월까지 2.9% 감소
 - 물량기준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은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올해 5월까지도 19.8% 감소
 - 물량기준 선행/동행지표인 건축착공면적은 기저효과로 작년 18.6% 증가했으나, 올해 5월까지도 20.7% 감소
 - 금액기준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작년 2분기부터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에는 5월까지 21.1% 급감
 -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아파트 분양물량은 작년 소폭 증가했으나, 올해 5월까지 6.3만호로 전년동기대비 3.5만호 감소
- 당초 상반기 건설시장은 건축중심의 민간투자 부진을 공공투자가 일부 상쇄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공공투자의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면서 건설시장 전체가 부진한 모습
 - 특히, 올해 5월까지 건설기성은 21.1% 줄어들어, 이는 1998년 3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
 - 건설기성은 진행 중인 공사의 실적을 보여주는 지표로 건설기업의 재무 악화는 물론 고용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

주요 건설지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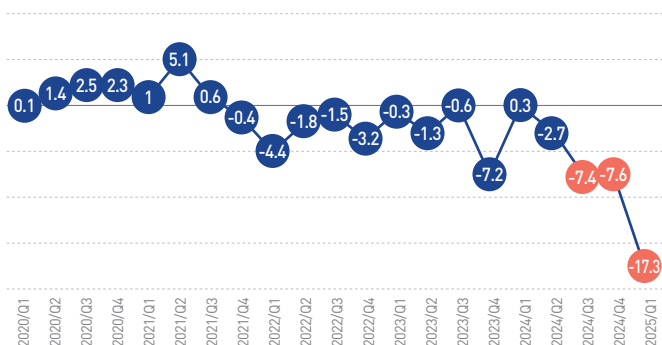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5월 누계
건설수주(경상)	-18.3	-10.4	20.7	26.8	9.7	10.9	-15.5	3.0	13.3	-10.3	-5.5	-2.9
건설기성(불변)	7.8	4.0	-3.1	-9.1	-9.7	-4.7	-27.4	-19.8	-16.3	-21.1	-20.8	-21.1
건축허가면적(연면적)	-25.6	-17.2	-16.4	-9.9	8.4	-9.2	-34.4	-27.3	-8.7	-15.9	-12.1	-19.8
건축착공면적(연면적)	-31.7	15.2	33.1	40.3	-4.2	18.6	-37.8	-44.7	-5.9	-4.9	-12.9	-20.7
아파트 분양물량(만호)	21.1	5.8	5.8	5.7	7.7	25.0	1.0	0.8	0.5	2.3	1.7	6.3

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 부동산114

2025년 3/4분기 건설시장: 새정부의 추경과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반등이 기대되나, 연간 부진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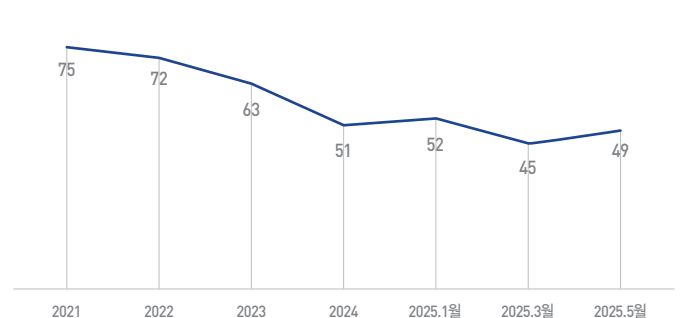
- 새정부의 추경과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등으로 하반기 건설시장은 상반기에 비해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 새정부는 취임 직후 추경을 실시하는 등 경기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의 재정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 건설부문에서도 국가 균형발전, SOC 발주확대, 주택공급 확대,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
 - 현재 건설시장 내 물량 자체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
-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건설지표의 일부 반등은 기대되나, 그간 누적된 선행지표 감소세를 감안하면 건설경기 부진은 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 건설 선행지표와 동행지표는 각각 시차가 존재하는데, 통상 6개월에서 최고 3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건축허가, 건축착공 등이 2022~2023년까지 부진했다는 점, 2024년 수주와 착공이 반등했으나 올해 들어 재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경기의 회복세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 상반기 건설투자와 기업심리가 최악이라는 점에서 기저효과로 3분기 반등은 예상되나, 회복세가 크지 않을 전망

최근 건설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건설업 기업경기조사(BSI)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전문건설시장

“2025년 2/4분기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전년대비 감소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원도급공사 부진이 심화”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25년 4월 10.5조 원, 5월 8.7조 원으로 집계되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으로 평가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전년동월대비 4월은 0.9% 증가, 5월은 6.5% 감소한 상황
 - 4월과 5월 하도급공사 계약액은 보험 수준인 반면, 원도급공사 계약액은 각각 3.5%, 10.5% 감소
 - 새정부의 출범에 따라 건설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최근 발표된 추경(안)에서 건설분야 배정액은 2.7조 원으로 전체 30.5조 원의 9% 수준에 불과하여 건설경기 회복·반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2025년 2분기 전문건설공사 수주실적(잠정)

시 기	구분	추정 수주액(십억 원)	전년 동월비(%)	과거 3년 동월비(%)
'25년 4월	전문건설업 전체	10,583	+0.9	+3.1
	원도급공사	3,879	-3.5	+10.9
	하도급공사	6,704	+3.6	-1.0
'25년 5월	전문건설업 전체	8,735	-6.5	-3.7
	원도급공사	2,986	-10.5	+3.1
	하도급공사	5,749	-4.4	-6.9

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실적('25.4~'25.5)을 기반으로 추정

자료: 전문건설공제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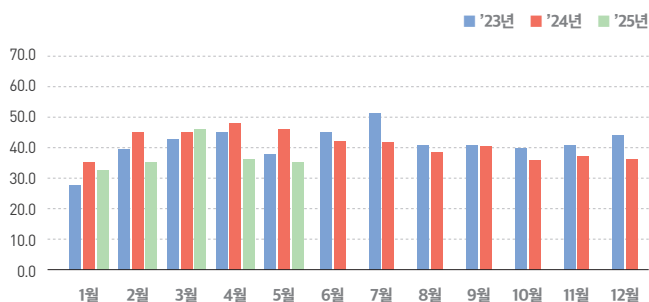
“2025년 3/4분기 전문건설업: 건설경기 전반의 부진에 따라 전문건설업 업황 개선 가능성은 낮은 상황”

- 건설경기의 악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공공부문의 활성화 조치만으로 단기 반전을 이끄는 데는 한계
 - 시장침체 등에 따른 공사수주의 감소와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건설공사의 수익성 둔화가 여전한 상황
 - 하도급 위주의 공사에서는 공사대금 수급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지적되어 전문건설업체들의 사업환경도 정체
- 건설경기 전반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전문건설업 업황 부진은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2025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체감도(BSI)는 최저 수준으로 업계의 부정적 심리 상황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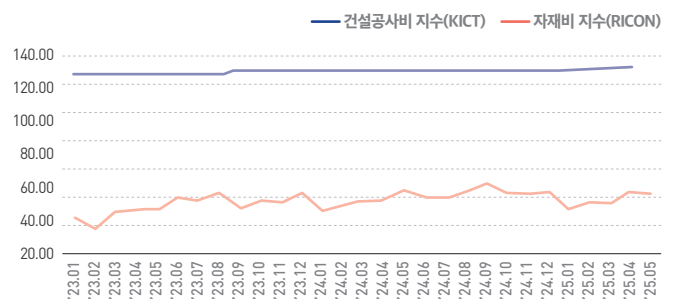
- 전문건설업체의 2분기 건설경기 체감도(BSI)는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업계의 심리 악화는 다음 분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 하반기 새정부의 경기 진작에 대한 기대는 존재하나, 수주물량 감소를 토로하는 업체들이 상당
 - 기능인력 수급난과 인건비 부담, 종합과 전문건설업간의 업역충돌(상호시장진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미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건설노조 등의 문제도 꾸준히 지적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C-BSI) 비교(최근 3년)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와 자재수급지수 비교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월별 사전 전망 및 실제 평가치

구분	'24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월별 전망	45.1	44.6	45.9	41.6	37.4	26.3	38.2	47.0	43.9	41.4
월별 평가	39.4	40.7	36.7	37.4	36.8	32.1	35.0	46.5	36.8	35.8

주 택 시장

2025년 2/4분기 주택시장: 서울 중심의 국지적 상승세 지속, 지역 간 가격 격차는 더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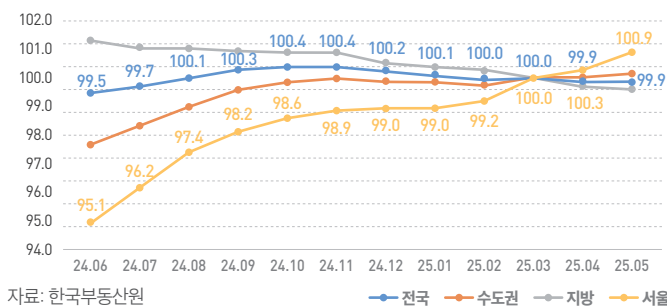
• (주택가격) '25년 2분기 주택가격은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며, 주택시장 내 양극화 흐름 지속

- 지역별로 '25년 2월 대비 5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전국과 지방은 각각 0.1%, 0.5% 하락한 반면,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4%, 1.7% 상승
- 서울의 경우, 1분기에 발생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인해 일부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이러한 국지적 상승 흐름은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며, 서울 전체의 가격 상승을 견인
-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수요 부진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흐름은 '서울 상승 vs 지방 하락'이라는 뚜렷한 양극화 구도 형성

• (주택매매거래) '25년 1~2월에는 거래량이 다소 부진했으나, 3월부터는 2개월 연속 거래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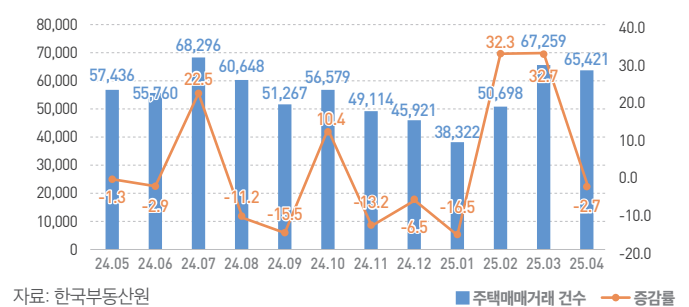
- '25년 4월 기준, 주택매매거래 건수는 65,421건으로, '24년 월평균 거래량(약 53,000건)을 1만 건 이상 상회
- 다만, 주택매매거래의 약 52%가 수도권(서울 18%)에서 발생하고 있어 거래 측면에서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2025.3월 = 100 기준)



전국 주택매매거래 현황

(단위: 호, %)



2025년 3/4분기 주택시장: 금리 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방 미분양 부담으로 회복세는 제한적

• (미분양주택) '25년 4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67,793호로 1분기 대비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절대 물량 기준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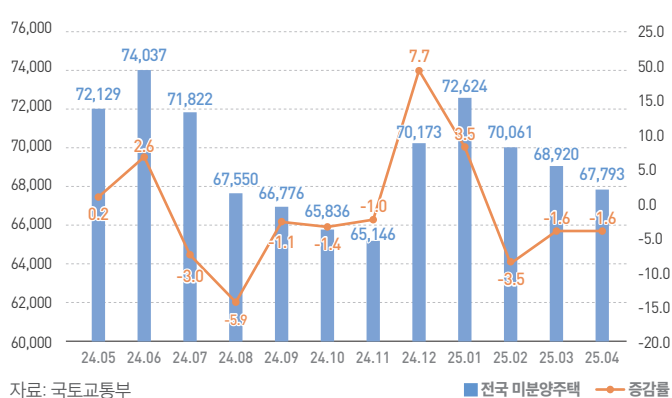
- 특히 전체 미분양의 약 76.5%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수요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

• (주택담보대출금리 및 주택가격전망)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모습

-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25년 4월 기준 111을 기록하며, 2월 이후 상승 흐름 지속
- 금리와 심리 지표 등 회복 기대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회복은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
- 서울 및 수도권 내 선호지역을 중심으로는 완만한 가격 상승과 거래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누적과 수요 위축으로 인해 3분기에도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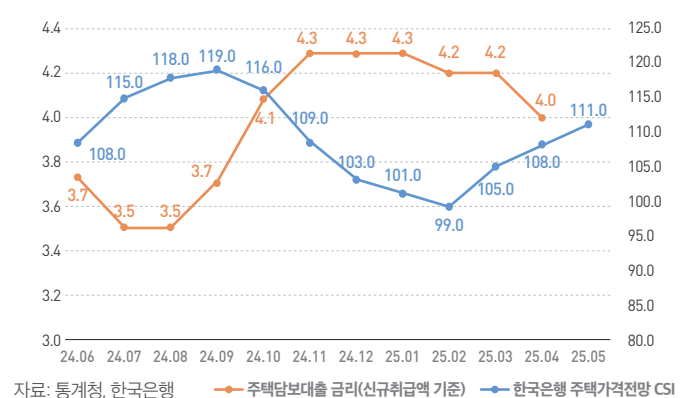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호, %)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주택가격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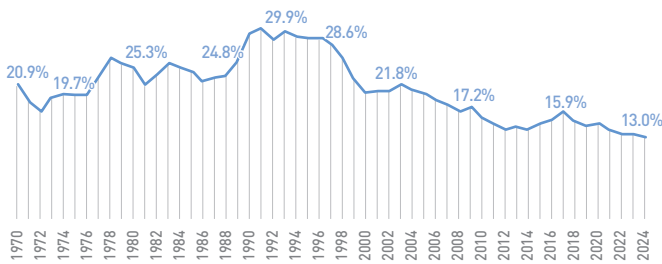


건설·주택시장 이슈 진단

이슈 1. 하반기 건설시장 전망

- 건설경기는 경제구조(경제성장률, 경제발전단계), 정책여건(재정기조, 정책/제도), 투자여건(금리, 부동산경기) 등에 영향을 받으며, 개별 선행지표와의 상관성도 크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를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
- 건설시장은 다양한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현재로서는 긍정적 요인에 비해 부정적 요인이 큰 상황으로 판단
 - (긍정요인) ①새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②금리인하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 완화, ③자재비 등 공사비 상승세 완화, ④건설공사 원가율 개선에 따른 수익성 소폭 회복 등이 대표적
 - (부정요인) 건설시장 내 부진 요인이 더 큰 상황인데 ①허가와 착공 등 선행지표 부진, ②기성, 투자 등 동행지표 급감, ③성장을 둔화 및 수요 약화, ④부동산PF 불확실성, ⑤지역경기 침체 및 양극화 심화 등이 대표적
- 하반기 건설시장은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인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
 - 여기에 수주, 허가, 착공 등 선행지표 회복이 올해 내내 지속된다면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존
 -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기업도산은 물론 성장을 둔화가 심화되므로 새로운 건설 수요 활로를 모색해야할 시점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건설경기 긍정 및 부진 요인 평가

건설경기 긍정 요인

- 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 완화
- 새정부의 경기 활성화 기대
- 공사비 상승 완화
- 수익성 일부 회복 예상

건설경기 부진 요인

- 허가 및 착공 등 선행지표 부진
- 기성, 투자 등 동행지표 급감
- 경제성장률 둔화 및 심리 악화
- 부동산 PF 불확실성 여전
- 지역 건설경기 침체 및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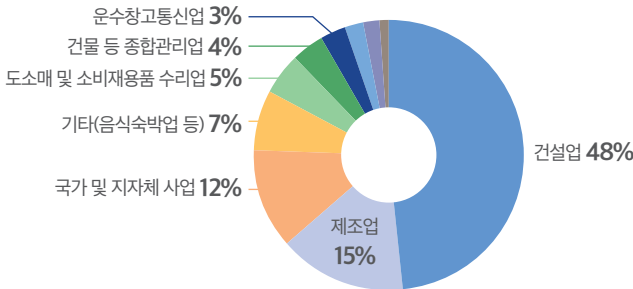
건설경기 긍정적 요인에 비해 부정적 요인이 큰 상황으로 하반기 부진이 지속될 전망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슈 2. 하계 건설업 산업재해 실태와 대응방안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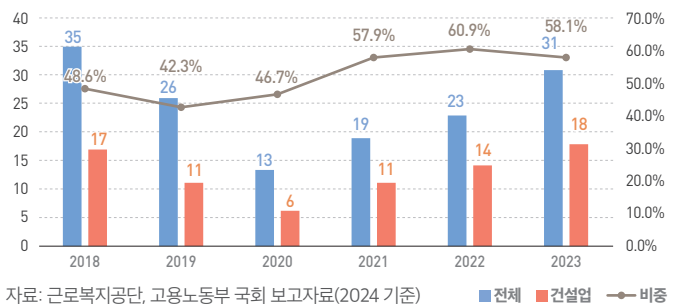
- 국내 하계 산업재해는 온열질환과 관련 사고가 급증하는 고위험기로 예방적 대응을 위한 맞춤 관리와 교육·감독 필수
 - 국내 하계(6~8월) 건설업 재해는 폭염과 더위에 따른 온열질환 및 전통적 산업재해(추락, 매몰, 붕괴 등)로 발생
 - 건설업은 매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중 가장 높은 비중(48%)을 차지하며, 2020년 코로나19로 잠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이로 소규모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는 상황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재 업종별 승인 비중 (단위: %)



자료: 근로복지공단 국회 제출 자료(2024년 6월 기준)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재 추이 (단위: 건, %)



자료: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국회 보고자료(2024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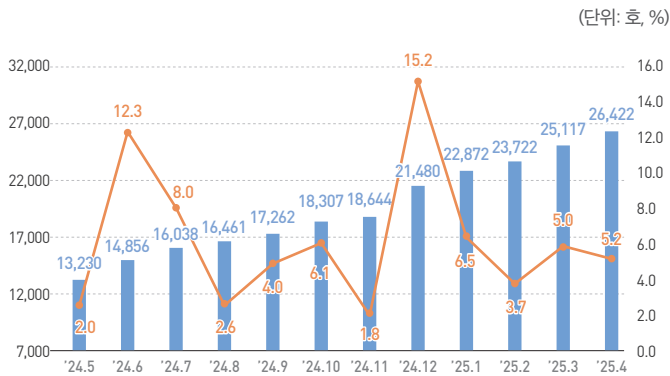
- 건설업 하계 재해감소를 위해 작업 단축·중지 및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맞춤 안전 지원과 컨설팅·교육 강화 필요
 - 5~9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으로 체감 31℃ 초과시 작업단축과 38℃ 초과시 야외작업 중지 권고
 - '물·그늘·휴식' 3대 수칙을 현장에 전파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 열사병 안전예방 컨설팅과 용품지원 확대
 -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맞춤 안전 지원과 무료 컨설팅·교육 확대
 - 적정 안전예산 확보 및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위험 예측·관리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

이슈 3. 주택보급률로 살펴본 ‘준공 후 미분양주택’ 위험 지역 점검

-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준공 이후에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의 주택보급률을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수요 대비 공급 과잉 여부를 점검

- (현황) '25년 4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26,422호이며, 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등 9개 주요 도시권에 집중
- (주택보급률 비교)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3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5%이며,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존재하는 지역의 주택보급률을 살펴본 결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등은 주택보급률이 100% 초과
-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수요 대비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가능
- 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대전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존재하지만, 주택보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함
- 이들 지역의 미분양은 공급 과잉보다는 '수요 정체' 또는 '지역 간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 가능
- 즉, 해당 시·도는 공급이 부족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선호 지역이나 외곽 지역에서는 수요가 따라주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하는 상황

준공후 미분양주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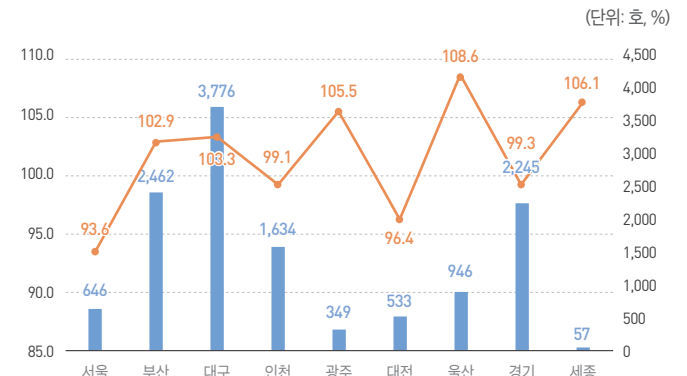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 현황보고」

■ 준공후 미분양주택 — 증감률

주: 주택보급률은 2023년 자료가 가장 최근 공표된 통계로, 이후 연도 자료는 미공표 상태임

지역별 준공후 미분양주택과 주택보급률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2023.

■ 준공후 미분양주택 — 주택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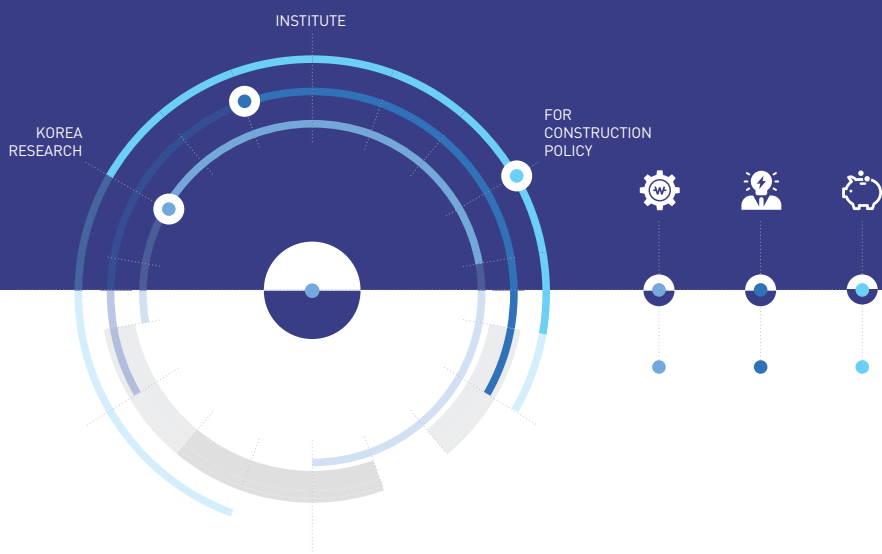
이슈 4. 부동산 개발사업에 프로젝트리츠 적용

-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5.5 공포)으로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의 법적근거가 마련
 - 이를 통해 그간 자기자본 규제 없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로 추진되던 부동산 개발사업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 리츠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
 - '프로젝트리츠'는 개발단계에서 인허가·공모·공시의무 등을 완화하고, 운영단계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적용
 - '지역상생리츠'는 지역의 핵심적인 개발사업에서 우선공모를 통해 지역민을 리츠에 참여시키고 수익배당으로 사업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효과가 존재
- 지자체와 공기업들은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주요 개발사업에 리츠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의 운영성과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업분야에서 리츠가 확대될 여지가 충분
 -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다양한 유형의 지역상생리츠로 개발해 지역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공모하는 사업을 검토할 예정

리츠 방식 개발에 따른 사업구조 변화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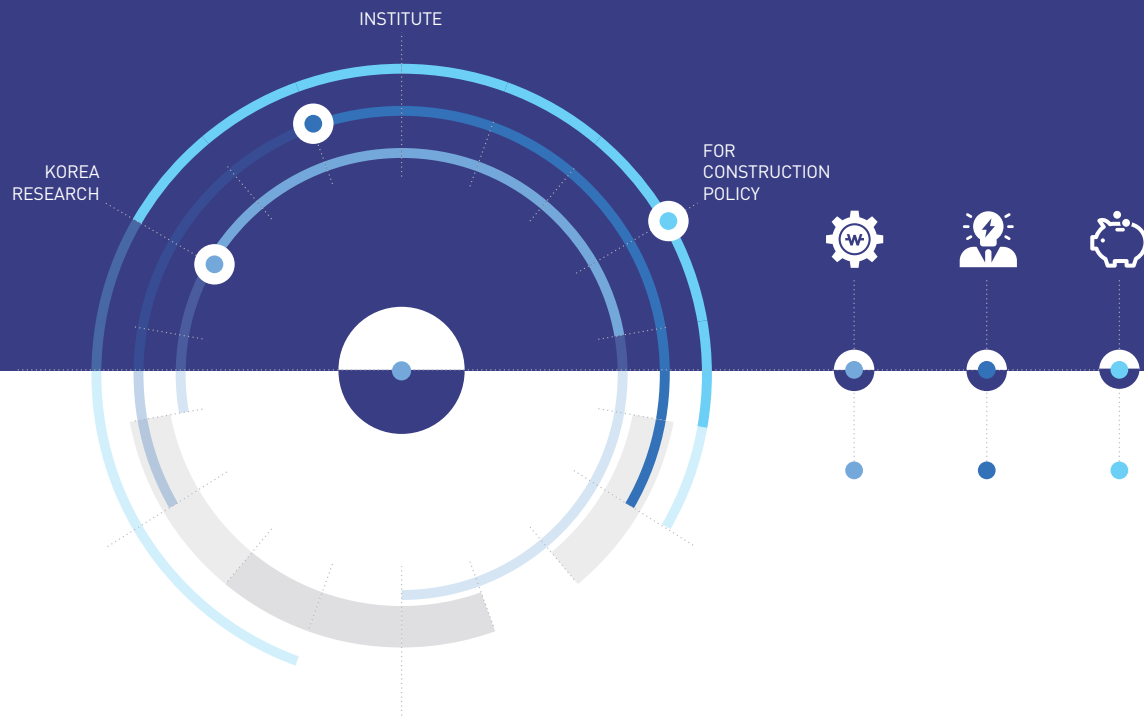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발행일 2025. 6
발행인 김희수
발행위원 박선구, 이은형, 정대운, 고하희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07071
TEL 02-3284-2600 | FAX 02-3284-2620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 시장동향 및 전망

건설시장

(1분기) 주요 건설지표가 전방위적으로 위축되며, 건설경기 부진 심화
(2분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공공은 반등이 예상되나, 민간의 부진은 지속

전문건설시장

(1분기) 계약액이 감소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하도급공사 부진이 심화
(2분기)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전문건설업 업황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

주택시장

(1분기) 주택시장 침체 속,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나홀로 상승'
(2분기) 주택거래 감소세 영향으로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위축 가능성 증대

🔍 이슈 진단

1. 건설경기 부진 요인 점검

부진 요인의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 수요 진작을 통해 경기하강 최소화

2. 부동산 PF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

부동산 PF 제도개선을 통해 PF 사업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중요

3.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필요

지자체 및 지역 연구기관의 대규모 수요조사를 통해 긴급 사업 발굴과 추진

4.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 2008년 vs 2025년 현황 비교

'25년 미분양주택 매입 규모는 '08년에 비해 적으나, 매입 비율은 유사한 수준